

## 생인손

정간난 여사는 올해도 어머니 표마리아 할머니 기일 연미사를 안신부에게 부탁해 왔다. 75세의 노신부는 본당을 말지 않은 지 오래였으나 표할머니의 영세 신부이고, 연결 미사 때부터 할머니 연미사는 빠지지 않고 맡아 왔었다. 올해는 10주기여서 신부의 감회도 깊었다. 마리아 할머니는 잊혀지지 않는 교우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표마리아 할머니가 영세한 것은 여든 일곱 때, 그때부터 꼭 10년 전 일이었다. 너무 고령이어서 찰고(察考)도 문답(問答)도 그냥 넘어갔다. 신부는 그저 「예수 마리아」만 봉송하라고 했을 뿐이다. 따라서 교리도 잘 모른다. 할머니는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신부 말씀대로 「예수 마리아」만을 외었다.

몇 해 전부터 까만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눈도 귀도 도로 밝아져서 쉰 한 살이 된 손녀딸이 한번에는 께지 못하는 마늘 귀에 실을 단번에 꿰어 주기도 했다. 젊어서는 꺾다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오그라들어 오히려 아리잠직한 몸집이다.

안신부는 이 할머니가 좋았다. 늙으면 자칫 뻔뻔해지기 쉽고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지기 일쑤인데 표할머니는 언제나 공손하

고 항상 천주의 은총이 자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말수가 적다기보다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만큼 조용했다.

그 할머니가 일생 범한 죄를 고해하겠다고 짐짓 안신부를 청한 것이다. 할머니가 영세를 한 것은 여든 일곱 살 때이니깐 설사 그때까지 범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원죄와 더불어 그 성세(聖洗)로 깨끗이 씻겨졌을 것이고, 그로부터의 10년은 남의 눈에도 천당행의 준비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부도 가족도 새삼 할머니의 나이를 상기하였었다. 아흔 일곱 정신이 오락가락도 하시겠지.

할머니는 고해소에 들어가 본 일도 고해를 한 일도 없다. 물론 예절도 모른다. 할머니 방에서 신부는 연대를 목에 걸었다. 보료 위에 정좌하고 장침에 굵치를 얹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러자 어색한 생각이 가서졌다. 그는 엄숙한 사제의 어조로 나직하게 말했다.

「범한 죄를 고하십시오.」

할머니의 고해는 격렬한 오열로 시작되어 신부를 당황하게 하였다. 근 백 년의 오열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쏟아 놓는 것 같은 처절하고 창연하고 숙연하기조차 한 울음이었다. 뭉쳤던 백 년 한이 터져 일시에 풀려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오랜 사제 생활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자세는 흐트리지 않았지만 신부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윽고 오랜 흐느낌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을 때 신부의 당혹과 경악은 더욱 커졌다. 할머니의 말투부터가 전연 예기치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원네는 사직골 정참판댁의 누대종의 딸년으로 태어나 언년이 라구 불렀사와요. 그때 종년의 이름은 대개 간난이 오목이 언년이 꿩꿩이라구 했읍지요. 간혹 중간에 새 상전을 피시게 될 때 들어간 달이 그대루 이름이 됐사와요. 오월에 들어가면 오월이, 삼월에 들어가면 삼월이라구 했읍지요. 종놈은 장끼 범이 개똥이 바위 따위루 불리굽시구요. 천허구 서러운 이름입지요. 나면서부터 천덕꾸러기이지오니까. 상전댁 따님이나 아씨들이 애기낳이 하

실 때 태어났다간 젓두 얻어먹지 못합지요. 한집에 살면서 어멈  
 얼굴두 못 보구 겨울엔 토방에 깔린 거적때기에 찢리며 지가 싹  
 뚱오줌 뱀뱀이 되어 앙앙거리구, 여름이면 행랑채 마당에서 흙강  
 아지루 굴렀읍지요. 어멈 젓은 상전댁 애기에게 뺏기구 같은 처  
 지 종들이 틈틈이 꿰어 목에 넘겨 주는 암죽으루 이어가는 목숨  
 입지요. 열 낱아 셋 건지면 좋은 농사지오닛까. 마구 죽어 내다  
 버렸읍지요. 죽은 자식 거적에 말아 쳐다 버리며 아범은 팔자 좋  
 게 일찌감치 잘 갔다, 그래 자알 갔어 허구 울굽시구요. 흥역마  
 마가 아니더라두 어린 목숨은 쉬이 꺼졌사와요. 하오나 종새끼두  
 삼신이 들보면 천대 속에서 목숨 부지합지요.

원네 올해년 동짓달 출생으루 마침 대방마님 늦게 득녀하셨을  
 때이오라 어멈은 미역국물두 넉넉히 얻어먹었다구 황송해했사와  
 요. 아범은 비부(婢夫)루 내당 마당 비질두 했읍지요. 옛날에는  
 비당엔 청지기두 잘 출입 못 했사와요. 내외가 아주 엄쳤났지오  
 니까. 아범이 내당 출입했던 것은 원네 어멈의 서방이구 워낙 위  
 인이 무던했기 때문입지요. 마님은 그때 마흔이 넘어 수태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셨다구 듣자왔어요. 다행히 윗대 어른들이 모두  
 타계하신 뒤이오라 윗어른들 앞에 죄스러워하실 일은 없으셨지만  
 며느님 따님 뵈시기 민망스러워하셨답지요. 노산(老産)이시니 유  
 도두 성치 못하시와 원네 어멈이 유모 노릇을 했읍지요. 그러니  
 까 원네는 그댁 애기와 젓을 노랏먹은 것입지요. 그래서 어멈을  
 죽을 때까지 그댁 작은 아씨는 엄마라구 부르셨구, 다른 아랫사  
 람들은 젓 덕택에 유모됐다구 부러워들 했지오니까. 정씨댁은 후  
 헌 덕이었사와요. 젓을 뺏긴 원네를 측은히 여기시어 반비간 아  
 랫사람에게 암죽 충실히 먹여라 험했다 하와요. 그래선지 젓먹구  
 자라시는 애기보다 암죽 먹는 원네가 더 충실히 어멈이 죄스러워  
 했다지오니까.

옛날엔 양반 댁 마님, 아씨들의 유도가 성하지 못하시거나 허  
 약하실 때 유모를 대셨읍지요. 또 호사루 몸 보존하시기 위해서  
 도 유모를 대굽시구요. 유모는 우선 집안이나 동네에서 같은 무  
 령 생산헌 아낙들 중에서 골랐읍지요. 아랫것이 때마침 젓먹이를

가졌다가 내내 어려운 형편의 부인들 아니면 동네 아낙에서 구했사와요.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젖 좋은 젖 가진 사람이 뽑혔읍지요. 젖에는 찰젖과 물젖이 있사와요. 찰젖은 진허구 되구 근량이 나가지오니까. 물젖은 뭍어 애기가 잘 자라지 않사와요. 그래서 유모를 정허기 전에 젖을 짜서 근수를 달았다하와요. 원네 어멈 젖은 분명 찰젖이었사운데 애기가 워낙 약질이셨겠읍지요. 어멈에게 좋은 젖을 내게 하기 위해 마님은 보약두 맥이시구 좋은 음식두 맥이셔서 반지르를 해줬더라 하와요. 어멈은 우직허구 어리무던하여 제 새끼 못먹이는 갖가지 진수를 넘어가지 않는 목구멍에 간신간신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하와요. 눈물을 흘리면서두 마님 분부 없이는 원네에게 고깃절 하나 주지 않았다구 듣구 있사와요. 어멈이 먹는 게 아니구 애기가 잡수시는 것이었지오니까. 그래두 어멈 덕분에 원네는 애기 동무 되어 드리며 자랐읍지요.

원네는 꺾다리루 자라 모두들 저년 하늘 높은 줄만 알구 조선 넓은 줄 모른다구들 혀를 찼읍지요. 그때는 옆으로 퍼지른 조선 넓은 줄만 알구 하늘 높은 줄 모른다구들 했사와요. 두루 고루 자라야 한다는 뜻이겠읍지요. 원네와는 달리 작은아씨(상전 딸이 소녀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아랫사람들은 작은아씨라고 불렀다)는 아리 잠직 정말 아리따운 자태로 자라셨사와요. 어멈은 아침마다 푸른빛으로 윤이 흐르는 삼단 같은 머리를 어레빛으로 빗어 내리고 찰빛으로 다듬고 민빛으로 고른 뒤에 이마 위에 똑바로 탄 가리마 양쪽 머리 얼마큼 잡아 깃머리 땡고 뒤에서 한테 모아 민빛 질해 가며 세 갈래로 낸 머리를 삼줄 꼬듯 착착 엮어 땡고 다홍 땡기 제비로 물려 드렸읍지요. 분줄을 놓은 듯 새하얀 가리마, 볼그레 얼비치는 컷밥, 은행 껍질 같은 눈매, 오뚝하면서 날카롭지 않은 코, 정말 절색이셨사와요. 태중에서부터 약질이신 걸 마님은 노산 탓이라구 못내 송구해허셨읍지요. 여공두 그리 매섭게 익히게 하시려 합지 않으시구 잠드신 따님 얼굴을 애처로우신 듯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두 허셨사와요. 항상 언넨아, 작은아씨 잘 모셔야 한다 하시군 눈을 떨구시기두 허셨읍죠.

동갑이지만 작은아씨는 다홍 삼팔치마 살짝 끌구 연두빛 도리 불수 겹매기 받쳐 입으신 맵시엔 색시꼴이 나시기 시작하시는데 원네는 깃두 쉼두 몽푹하게 모진, 얼멍덜멍 얼룩진 것을 저고리랍 시구 걸치구 돼지꼬리에 땀기 단 것 같은 머리꼬리 수선스럽게 흔들며 부산하게 드나들어 말대가리 설삼은 것 같은 저년 언제나 사람될구 허며 어멈 걱정이 대단했지오니까. 그래두 종년은 종년 대루 상전택 요조숙너님들 모릅시는 낙두 있었읍지요. 임오년 난 리가 나기 바로 전이었읍죠. 원네보다 두어 살 위인 장끼녀석이 잔 가지틀 쳐 버린 제 팔뚝만헌 작대기를 어깨에 메구 괴상한 소리루 「전진」 하더니 팔과 발을 크게 흔들며 걷사와요. 원네는 깔 깔거리며 웃었읍죠. 그랬더니 장끼란 놈이 갑자기 큰소리루 「정지」 허구 외치구 딱 그 자리에 섰지오니까. 그리곤 「회전」, 「우향우」 하더니 몸을 획 돌려 원네 쪽으로 고개를 돌렸사와요.

「이거 벨기군(별기군·別技軍) 놀이야 이 멍청아. 너 벨기군 구경두 못 했지.」 철딱서니없는 원네는 그 벨기군이 구경허구 싶어 안달이 났읍죠. 며칠 후 원네는 장끼를 따라 남산 밑 괴련장(교련장·教練場)인가 허는 델 갔읍죠. 남산엔 진달래가 타듯 지천 으루 피어 있었사와요. 그 진달래산을 저만큼 뒤에 허구 편편한 터가 넓게 담여져 있었지오니까. 그리구 그 터 끝에 짚을 씨운 긴 말뚝이 한 줄루 박혀 있었사와요. 흥칙한 시커먼 흘태바지를 입구 소매가 좁은 동정두 없는 흥한 모양의 시커먼 동저고리에 앞에 챙 같은 게 달린 괴상한 관(모자)을 쓴 사람들이 많이, 백 명은 조이 뻬사와요, 몇 줄루 나뉘 서구 그네들 앞에 포뚱하게 생긴 사내가 칼을 빼들구 서서 무슨 말인지 압지 못하는 말루 고향을 질렀사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옆에 서 있던 사내가 큰 소리루 「기착(氣着)」 허구 외치지오니까. 백 명이 넘은 장골들은 그 소리를 듣고선 아닌 밤중에 흥두께 만난 사람처럼 흠칫 허더니 한 발루 다른 발을 착 차구 그대로 굳어 버리지 않겠사와요? 앞에 선 사내가 빼들고 있는 칼날이 번쩍해서 원네는 장끼 등에 착 달라붙었읍죠.

장끼녀석이 「이 시라소니 같은 기집애. 저게 벨기군 훈련이라

는 거야. 너 모르지. 총쏘기는 더 재밌어. 저 봐 지금부터 시작  
 할 꺼라구.» 장끼는 괜히 신명이 났었사와요. 칼 빼든 사내가 뭐  
 라구 또 외쳤음쬬. 그 말을 들은 장골들은 이번에는 끈 늘어놓듯  
 두 줄이 되어 별판 들레를 뛰기 시작했지오니까. 장끼녀석은 더  
 욱 신이 나서 「저 봐. 발이 척척 맞지 않아. 아, 잘 땀다.» 하며  
 손박꺼지 쳤사와요. 장정들이 제자리에 돌아오자 이번에는 짚 썩  
 운 그 말뚝을 향해 늘어서서 발 밑에 너인 굵은 작대기들을 들어  
 올리곤 눈높이껴정 가지구 갔사와요. 칼 빼든 사내가 또 소리를  
 지르고 옆에 선 사내가 그 말을 받아 또 소리를 치자 「탕 탕 타  
 당 탕」 허구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지오니까. 쉼네  
 는 그만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찧구 말았음쬬. 「허허허」 「하하하」  
 어느듯 모여든 구경꾼이 모두 큰소리로 웃사와요. 허나 그전 쉼  
 네보구 웃었던 것은 아니었음쬬. 벨기군 하나가 그 작대기 수작  
 을 허다 제 힘에 튕겨져 튕굴었던 것입쬬. 그게 우스워 웃었던 것  
 이지오니까. 칼 빼든 사내가 달려들어 마구 치구 때렸사와요. 그  
 괴상한 관이 그 바람에 벗겨져 떨어지구 소담한 상투가 불쑥 나  
 타났지오니까. 어린 마음에 두 사뭇 어색해 갑자기 돌아가구 싶어  
 졌음쬬.

사직골택으로 돌아가니 작은아씨는 언제나처럼 그린 듯이 앉으  
 서서 수를 놓고 계셨사와요. 고우시고 귀하시지만 희한한 벨기군  
 구경두 못 헉시구 갇혀 사시는구나 허는 생각이 스쳤음지요. 희  
 한한 구경은 그뿐이 아니었지오니까. 하루는 장끼녀석이 「언년아  
 너 가지등 구경 못 했지.» 허구 사뭇 뼈졌사와요. 「가지등이 먼  
 데.» 「이 멍꽂이, 가지등두 몰라. 대궐 앞허구 육조 앞 큰길에  
 서 있는 긴 장대 위에 켜진 불이야. 장대끝이 두 가지루 갈라지  
 구 가지 모양의 등이 달렸는데 아주 아주 밝아. 너 그 밑에선 팽  
 이두 칠 수 있다.» 「우리택 사랑 영감마님방 남포버덤 더 밝아?»  
 「그러엄, 그리구 바람이 불어두 꺼지지 않구 옷이 다아두 안 탄  
 대.» 남포만 해두 도깨비 선물같이 희한만 했었을 때였음쬬. 꿈  
 만 같은 얘기였지오니까. 그 희한한 가지등두 장끼따라 구경했  
 음쬬.

그리구 보니 작은아씨보다 원네가 더 아는 게 많아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사와요. 엄한 내외법에 묶여 증문밖두 나서지 못하는 양반댁 부인네와는 달리 체면 범절 차릴 것 없는 천함이 차라리 복이었음쥬. 어엿한 대접두 못 받으면서 실불리 체면차려 나들이에 장옷 쓰는 중바닥 여염집 아낙보다는 더더욱 덕볼 때두 있굽시구요. 그래서 마님 걱정 어멈 닥달 무릅쓰구 곤잘 쪼질러다니기두 했사와요. 덕분에 임오난리 안팎에 장안에 퍼졌던 대궐 안괴사두 곤잘 물구 들어가 잘 압지두 못하면서 지궐여대어 작은아씨 새애기씨(젊은 상전의 신부를 아랫사람이 일컫는 말)가 얼굴을 붉히신 일두 있음지요.

어쨌건 그때 장안에 파다하게 떠돌구 숙덕거려졌던 일이 정말이라면 민중전마마는 아주 아주 망칙한 나쁜 분이라 하겠음지요. 갑신년 소동 땐 열 살이었사와요. 옥권(옥균·玉均)이가 어쨌구 왜놈들이 뵈했구 하는 어린 귀에두 심상치 않은 말들이 들렸었지 오니까. 원네는 덤병덤병해서 어멈 말에 따르면 말만한 년이 증문 높은 문지방을 경중 뛰어넘으며 그때 향려에서 불리던 동요를 큰소리로 불렀음쥬. 「술레병정 개병정 대궐 안의 이 잡아먹구 소반 밑의 쥐 잡아먹구——」 그러면 어멈이 질겁을 하구 뛰어나와 거칠게 입을 틀어 막았사와요. 영문은 압지 못했음지요만 큰일날 소리라는 겁지요. 장끼가 역적모의나 하는 것 같은 껏속말루 「이 천치야, 너 그거 목 달아날 말이야. 대궐 안의 <이>는 너 상감의 성씨구 소반 밑의 <쥐>는 너 상감마마 <띠>를 말허는 거래. 상감마마는 임자(壬子)생이시거든. 그러니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야. 알았어. 이 멍충아.» 상감마마의 성씨가 이씨라는 것두 그때 처음 알았음쥬. 장끼아범두 언년이 네년 제 목숨에 죽구 싶거덜랑다시는 그런 맹랑한 소리 해선 못써, 허기야 동요를 사람 힘으루 막을 수 있나. 하늘에서 목동이가 내려와서 퍼뜨리는 건데, 했사와요. 목동이가 먼데? 옥황상제가 보내시는 사동이지. 사동이 먼데? 예끼 고년 구찮다. 장끼아범은 정말 구찮아했음쥬.

그때 장 안에서 불리던 동요는 술레병정 개병정 말구두 「장사 장사 향아 장사 거들 머진 것이 무엇이냐. 오롱조롱 오랏줄에 오

목조목 노리개에 한 푼 내라 호박 사자. 두 푼 내라 참이(참외) 사자. 호박의 자식은 적실 자식 참이의 자식은 첩의 자식. 임진강을 넘어서니 피꼬리 색시가 웬 말이나. 방정맞구두 불쌍하다.」 이런 것이 있었읍죠.

정감록 풀이만큼이나 뜻풀기가 어렵습죠. 하두 오래 돼서 잊어버렸읍지요만 이것두 나라 망하는 걸 미리 말한 거라구 했사와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해 간다구 행랑채에서두 수근 수근 했읍지요만 참판댁 하루하루는 그렇지렁 같은 날들이었지오니까. 참판댁쯤 되시면 대갓댁이시입죠. 큰사랑 출입합시는 손님 말구두 작은사랑의 서방님두 시하시긴 허시지만 찾으시는 친구 분도 많사와요. 작은사랑이나 약방, 행랑에 묵고 있는 식객두 여간이 아넵죠. 20명 가까운 아랫사람들은 신세벽부터 밤참이 끝날 때까지 앉아 보지 못했사와요. 일이 벽차구 보니 남의 집 종 쓸모없단 말 듣기 십상으루 모두 제각기 맡은 일 외는 아예 헐줄두 몰랐읍지요.

반비는 밥만 제쳐내구 찬비는 찬만 만졌지 밥물을 얼마 잡는지두 몰랐지오니까. 손끝이 좀 야무지면 침선 말구, 다담이 다림질 잘 허는 어머들은 밥두 찬두 어디서 삶아 내구 익혀 내는지 압지 못했읍죠. 원네는 작은아씨 시중만 맡아 다른 아랫사람 눈에는 신선놀음만 허면서 열 네 살이 됐사와요. 마님 후덕허시구 작은아씨 착하시니 길 펴고 산 덕에 말만한 기집애가 철 없구 수선스럽구 맺힌 구석이 없었읍지요.

작은아씨는 그 해 봄 달포를 시름시름 앓으셨는데 추스르시기도 전에 길년이 되어 추석 지나 성례를 허셨읍죠. 평안 영남 경기 삼도 감사를 지내신 박대감댁 장손 도령으루 어르신네는 작고허시구 조부님 됩시는 노대감마님과 서조모 됩시는 마마님(당상관의 소실을 아랫사람이 일컫는 말), 그리구 시어머님 마님에 청상으로 본댁에서 늙으신 고모님과 출가하신 시누님이 두 분, 약질인 작은아씨에게는 중한 시하에 들어가셨사와요.

아, 여든 해가 훨씬 넘은 지금두 그날의 새애기씨 꽃 모습은 잊을 수가 없사와요. 성적시켜 드린 수모두 평생에 이런 아름다



운 새색시 성적 한 번 시켜 드렸으니 죽어두 수모로서 여한이 없  
다구 했읍지요. 그 고운 자태가 시어머님에게는 첫눈에 못마땅하  
게 보이셨던 겹지요. 미인박복이라 하지 아니오니까. 애지중지  
금지옥엽 외아드님께 행여 끼치는 거나 없을는지 염려 막심허셨  
던 모양이시와요.

워낙 대가 세으신데다 차신 어른이셨읍지요. 게다가 굳으셔서  
삼도 감사 IO여 년에 칠량(재산)두 어마어마협신데 조석으로 흡  
되로 쌀을 되어 반비에게 내리셨지오닛까. 그때는 대개의 대갓  
덕에서 흡되를 쓰셨습죠. 꼭 한 흡들이 조그만 모되 가운데에 칸  
이 있습죠. 애기는 반 흡, 아낙은 살짝 한 흡, 남정들은 후하게  
한 흡, 꼬박꼬박 식구대로 되어 밥을 짓게 했사와요. 쌀은 느는  
겹지요. 한 흡이면 좋게 큰 사발 하나 참지요. 배를 풀리는 것은  
아니었사와요.

그런데 이 어른이 새애기씨 뭇두 살짝 한 흡을 되셨지오니까.  
원네 뭇은 되시지 않으셨단 말씀입죠. 원네는 새애기씨 조전비  
(교전비·驕前婢)루 작은아씨 되시구 그대 사람이 되어 있었읍죠.  
한 흡 밥을 틀이 나눠 눈물로 먹었지오닛까. 이런 일은 여간해  
있었던 일이 아니읍지요. 그런 심한 규모는 드문 일이었사와요.  
작은아씨는 워낙 양이 작으셨지만 배주림버덤 정끓주림이 더 크  
셨겠읍지요. 본댁 어머니가 아셨으면 양식 대어 주셨으련만 어머  
님 마음 아파합신답시구 못 여쭙게 하셨사와요.

합례는 열 여섯에 협셨는데 법도 높은 덕이오라 내침(內寢)은  
일진보구 허락협셨지요. 한번은 새서방님이 몰래 새애기씨 방에  
들어가셨다가 불호령을 받으신 일두 있습지요. 새애기씨는 부끄  
러워 며칠을 고개를 들지 못허셨지오니까. 감사덕 마님은 정말  
얼음같으신 어른이시면서 또 그만큼 무섭게 범절두 높으신 분이  
셨읍지요. 이 어른은 뒷간 출입두 하루에 꼭 한 번 어두운 후 하  
셨사와요. 여편네 사람이 어찌 대낮에 염채없이 뒷간 출입을 하  
누. 그래서 믿으시지 못하올 말씀입지요만 한번은 배탈이 납신  
작은아씨 몇 번째 설사를 속곳에 받게 해 드렸읍죠.

양반님들 협시는 일 원네들 아랫것들은 알 수 없는 일이 많으

셨지요. 환정신성(혼정신성·昏定晨省)은 자손의 도립지요. 웃어른께서 주무시고 기침합시는 거동 정성껏 보살피 올려얹지요. 하오나 아홉은 인사는 공손히 머리 숙여 안녕히 주무십시오, 밤새 안녕히 주무셨을니까로 족하지오니까. 거추장스럽게 큰머리로 조석 문안드리게 합서 새댁 진을 뺏셨읍지요. 새벽에 소세합시고 머리함 가득히 서려 넣어 두는 소담한 다리 물려 큰 머리 낭자를 찌지시오니까. 아직 애릿애릿 어리신 목이 뒤로 제껴지실만큼 무거운 머릿지요. 옛 상전 부인네들 머리정수리는 삼십 넘으시면 훤히 빠지셨사와요. 그 무거운 낭자가 잡아댕기니 털 뿌린들 배겨 나겠아오니까. 괜한 짓들이셨읍지요. 그래두 노대감 마님은 손부 귀이 압시는 어른입시구 마마님은 가스러진 분이면서 대감마님 비위맞춰 드리시느라 까다롭지 않으셔서 조석 문안에 그리 큰 괴로움은 없으셨사와요.

하오네 대방마님은 다르셨읍지요. 어느 날은 오래도록 기침합신 기척이 없으셔서 장서 밖에서 오래 오래 기다려야 했읍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새기 전부터 방에 불켜 놓고 소세도 마치신 뒤가 아니시오니까. 아랫사람은 민망하읍지요. 거기다 대방 몸종인 오묵이년이 어찌두 양큼헌지 고년 때문에 고비두 많았었사와요. 하루는 고년이 다리를 감춰 놓아 찾다가 찾다가 민머리 쪽으루 문안을 들어가셨읍지요. 작은아씨는 애처로울만큼 머리술이 많으셨읍지요만 마님 눈이 번득합시더니 「큰사랑 문안은 민머리로 드려선 안 된다.」 차게 한 말씀 하셨지요. 원네가 간수 못 한 죄입지요. 그런 문안을 4년이나 내리 하셨사와요.

참판댁은 사직골이시구 감사댁은 교동이시니 지척입지요. 하오나 지척이 천리라 합지요. 허락이 없으시면 근친(覲親)두 못 가지시오니까. 그러면서 빨래, 떨어진 버선 같은 건 본댁에 갔다 드렸읍지요. 시댁에서는 조전비가 몇 따라가두 새댁 일거리 거창하겐 할 수 없었사와요. 시댁에선 침선 말은 아랫것두 있읍지요만 새서방님 뒤는 아씨가 허셔얹죠. 찬비 반비 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옵지만 윗어른 진지상 주안상 보살피 드리는 건 며느님 소임입지요. 당신 뒤 거두실 틈이 없으셨사와요. 그래서 원네는 자주

작은아씨 본댁에 심부름을 갔읍지요.

사월이었사와요. 인왕산이 싱그러운 녹음으로 덮여 가슴이 휘  
언해지지요. 그런데 갑자기 쪽박새가 「쪽박 바뀌 쥐 쪽박 바뀌  
쥐.」 허구 날카롭게 원망스럽게 울었지오니까. 원네는 눈물이 났  
사와요. 옛날 어떤 시에메가 심사가 사나와 며느리가 밥을 할 때  
작은 쪽박으루 쌀을 되어 주구 딸 차례 때는 큰 쪽박으루 되어  
주었답지요. 그리구선 며느리보구 밥이 왜 적느냐구 뷰아됐다 합  
지요. 며느리는 견디다 못해 죽어 새가 됐다지오니까. 그리구  
「쪽박 바뀌 쥐 쪽박 바뀌 쥐」 허구 울며 원망을 한다 합지요. 원  
네는 은근슬쩍 할퀴고 점잖게 골리는 양반댁 시댁살이가 역겨웠  
지오니까.

사직골댁은 그날 텅 비어 있었사와요. 영감마님 사촌형님의 희  
갑날이셔서 수연댁에 행차들 합시구 아랫사람들두 잔칫댁일 거들  
어 드리러 갔다지오니까. 댁에는 청지기 염침지와 장끼 두 사람  
만 있어사와요. 장끼는 스물 한 살 노총각으루 누루뎡뎡한 띠꺼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구 있었읍죠. 무식했지만 우직허구 꽤 충기  
두 있었지오니까. 원네를 보더니 달려나와 반겼사와요.

「야 언넨아 너 잘 왔다. 그러잖아두 심심했어. 근데 또 빨랫거  
리야.」 「그럼 우리 작은아씨 괴조조허게 피실 순 없잖아.」 「시댁  
가신 지 얼마데 아직두 작은아씨야.」 「내겐 돌아가실 때꺼정 작  
은아씨지.」 싱거운 수작을 하면서 빨랫거리를 내려놓는데 장끼가  
갑자기 원네 허리를 덤석 안지오니까. 기겁을 하면서두 큰소리는  
치지 았구 「왜 이래」 책망을 했읍죠. 장끼는 단내나는 입김을 뽀  
으며 「언넨아 나 네 생각만 허구 있는 것 몰라. 난 어려서부텨  
니가 좋았던 말야.」 그리곤 허리를 껴안은 팔을 자꾸만 조여 왔  
사와요.

한집에서 같이 자란 장끼, 짓궂게도 굴면서 늘상 오래비 갈사왔  
죠. 자상두 허겁쇼. 원네는 그만 눈물만 흘렸사와요. 쥐두 새두  
모르는 일인 줄 알았는데 큰일 저를렀던 걸 안 것은 얼마 후였지  
오니까. 마님은 아무 말씀 없이 차게 차게 원네 배를 훑어봅시구  
작은아씨는 고운 눈에 눈물만 그득히 담으셨사와요. 잊혀지지 않

는 일이 있음조. 한번은 역시 빨랫거리를 이구 참판댁엘 갔더니 마님이 들어오라 합시구 작은 목판에 인절미를 수북히 담아주시지 오니까. 작은아씨가 어머님께 드리는 문안 편지에 인절미 좀 먹여 줍시오라구 쓰셨다나입시오. 인절미를 먹었는지 황송함을 먹었는지 눈물만 났사와요.

야랫것들 조동이가 떠들썩했음조. 오목이란 년 신이 나서 야단이 굽시구요. 반비 말은 부엉어머니 「네년 팔자두 그만하면 알겠다. 근데 아이아범은 누구여?」 뗏뗏이 대답할 일이 못 됴음조. 가만히 있는데 오목이년이 쪼르르 말참견(말참견)을 했사와요. 「아유 너나 나나 천한 종년 신세. 양반님댁 요조숙녀와는 다르잖니. 종년 담 안의 서방이 열, 담 밖의 서방이 열 하잖아.」 노랫조루 비양거렸사와요.

열 달 채워 서럽게 딸년을 낳지오니까. 다행히 몸은 참판댁에서 풀렸사와요. 마침 작은아씨두 수태하시어 원네버덤 두 달 나중 해산을 합시게 되어 석 달 전부터 본댁에 가 기셨기 때문입조. 원네 해산은 된둥누기보다 쉬었습조만 작은아씨는 애기를 열흘이나 비르셔서 사경을 헤매시다 따님을 낳으셨는데 산후발루 고생 협시니 유도가 성허실 일 없으셨지오니까. 기구허게두 천한 모녀가 양대에 걸쳐 그댁 애기 유모 노릇을 하게 된 것입조. 덕분에 원네는 몸을 잘 추스를 수가 있었사와요. 그때는 아이아범이 장끼라는 것두 알려져서 참판댁에서는 종문서하구 장끼를 감사댁에 보내셨다 하오나 마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와요.

언년이 가 간난어머니 되어 작은아씨 피시구 감사댁으로 돌아간 건 여름이 다 갈 무렵이었었음조. 감사댁 마님의 심사는 좋지 못하셨사와요. 외아드님으로버덤 종손 데렌님 한 분 얻으시려구 합셨는데 따님 애기셨지오니까. 잔뜩 흐린 신관으루 며느님 문안 받으시며 「해산한 지 몇 달인데 아직 산때두 못 벗었느냐.」 차게 한 말씀 하시구 애기두 슬쩍 보시구 마셨사와요. 애기 어머님두 애기두 내내 허약협셔서 유모로서 원네는 멘목(면목)이 없었음조.

할머님 되시는 대방마님은 어찌다 애기를 들여다보시곤 「이년

너 네 딸년에 몰래 젓 먹이구 웃국만 애기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았구서야 아이가 왜 이 모양이야. 발칙한 년 같으니.» 억울한 말씀을 하셨사와요. 그루부터는 아예 행랑채에는 얼씬두 못하게 합셨음조. 간난이란 년두 행랑채에 갇히다시피 지내며 앙상하게 말라 갔사와요. 어찌다 다른 어멈들이 업고 나와 안뜰에 내려놓으면 에미보구 애답게 우음조. 그러면 마님의 불호령이 내리시지오니까.

「네 이년 여기가 어디라구 들어와 있어. 썩 나가지 못해!」 어른 꾸짖듯 발을 구르시구 「네 거기 누구 없느냐. 이년 끌어 내라.» 허셨사와요. 나중에는 어린 게 어찌다 방에서 기어나와두 에밀 보지 못하게 숫제 대청마루에 병풍을 치시구 모녀 얼굴두 서루 보지 못하게 허셨사와요.

「엄마 어엄마 엄마.» 간난이가 읊지요. 병풍 속에 갇히어 에미두 피눈물을 흘렸사와요. 얼마 그렇게 지나는 동안 약하시던 애기는 웨레 충실해지시기 시작헐시구 간난이란 년의 모가지가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음조. 가을이 깊어 가면 대갓덥은 더욱 바빠지시지오니까.

추석 차례는 댁에서는 잡숫지 았으시구 성묘만 헐시는 풍습이셨음조만 겨우살이 마련으루 날마다 이속두룩 다리미 소리가 자르러졌구 시향(時享)두 어마어마헐신 댁이시라 가진편 조과 만들기 눈코 뜰새 았었지오니까. 게다가 몇 번 제사가 가을에 들서서 정신 았사와요. 김장두 큰사랑 작은사랑 내당 행랑 모두 달리 담그셨음조. 송도 보쌈김치, 소김치, 장김지, 굴깎두기, 젓깎두기, 동치미, 백김치에 여름 지로는 무우장아치 절이굽쇼. 행랑채 아랫것 먹이로는 젓국 빼구 소금김치, 무우 즐거리찌 많이 많이 담급지요. 그러니깐 고춧가루 마련두 거창합지요. 오즘을 참아 소태증에 걸리는 일조차 았었지오닛까.

원네는 명색이 유모입시구 애기 어머님인 작은아씨가 댁에 기시지 았으셔서 애기애만 매달려 그래두 험한 일에서 얼마만큼은 멀어져 았었사와요. 작은아씨는 길내 몸을 추스르시지 못합시구 본댁에 가 기셨지오닛까. 아무래두 부족증(폐병) 같다 합시어 마

님께서 아드님 내외분께 단방(斷房)을 명하신 겁지요. 애기두 어머니 병환이 불길하니 한테 두면 못쓴다 합시어 원네가 피시구 감삿덕에 남아 있었읍지요. 칠거악이 엄연하오니 악질을 앓으시는 작은아씨는 가마머리 돌리실 수밖에 도리가 없으셨지오니까. 법도만 높으시구 차신 마님은 첫눈에 나신 며느님을 보내시구두 쓰린 얼굴 한 번 보이신 일이 없사와요. 하여튼 가을 일 북새통에 원네 귀에는 간난이 울음 소리가 자꾸만 들리지오니까.

그날은 참 부산한 날이었읍지요. 김장 절이느라 법석을 하는 중에 마님이 본댁 행차합시는 날이었사와요. 팔십 어머니 노환이 위중합시어 생전에 꼭 한 번 보시고 싶다 하시어 부득이 시늬님께 만사 맡기시고 떠나신 겁지요. 교군이 대청 아래 대령하구 오목이년두 피시구 떠날 차비 마치고 서 있었읍죠. 한바탕 소동 뒤에 교군이 떠나니 사방이 조용해졌사와요. 대감마님은 세상이 하 수상하여 낙향합실 의향이 기셔서 낙향처 잡으시루 충청도 일가택에 가신 지 수삼 일 됩시구 마마님두 그동안 아우님댁 가지시겠다구 출타합셔서 집 안에는 대감마님 따님인 청풍댁 아씨와 애기 외에는 모두 아랫사람들뿐이었었읍지요.

부엌과 반딧간이 추워서 마님 안 기신 틈을 타 모두 별당 아씨 방에 모여 마늘 까고 생깍질 끊어 내고 밤 배 무우채 치느라 법석이구, 부엌 뒷뜰 우물가에서는 배추 무우 한편 절이구 한편 씻구 하느라구 정신 없었읍죠. 바쁘면서두 웨레 한구석 조용했읍지요. 그 틈을 탄 듯 간난이 울음소리가 자꾸만 들리지오니까. 원네는 재빨리 방을 나와 사방을 살폈사와요. 우물가가 시끌시끌할 뿐 아무두 보이지 않사와요. 한달음으루 행랑엘 나갔읍죠. 외작문 고리가 걸려 있었사와요.

떨리는 손으로 고리를 제끼구 안으루 들어갔읍죠. 똥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사와요. 간난이는 지가 썩 똥오줌 속에서 울고 있었지오니까. 애간장이 녹아 내렸사와요. 똥오줌 묻은 걸 그대루 덤석 품어 안았읍죠. 아이는 사람만 보면 에미구 남이구 없던 모양으로 흑흑 느끼며 가슴을 파고들었사와요. 다섯 자세 치 창자가 토막토막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었읍죠. 터져 나오는 통곡을

삼키며 눈물과 때투성이의 애 얼굴에 뺨을 대며 조막만한 손을 꼭 잡았사와요. 그러자 아이가 불에 덴 것처럼 울지 않겠사오니까. 깜짝 놀라 보니 손꾸락 끝이 화젓가락 같사와요. 외작문을 조금 열구 아이 손꾸락을 살피니 그 애처럼고 작은 가운데손꾸락 손톱 밑에 기적가시가 박혀 있구 그것이 덧나 생인손을 앓구 있었던 것이옵지요. 눈에서 불꽃이 튀겼지오니까. 앞뒤 생각 앓구 정신 없이 안구 나왔읍죠. 애기방에 들어가 우선 옷부터 벗기구 똥오줌 물수건으로 닦아 내구 애기옷 한 벌 꺼내 입힌 후 얼굴 씻기구 영키구 몽친 머리를 가려내렸읍지요. 박씨 부인 조복 꾸미듯 한숨에 해치우곤 반듯반듯 바둑판으루 종종머리두 땅아주었읍죠.

두 아이는 이내 어울려 쨍쨍거리며 놀지 아니 하오니까. 어떤 쪽이 상전댁 애긴지 어떤 쪽이 종년 딸인지 비슷비슷하와요. 그러다가 간난이는 또 보채기 시작했읍죠. 생인손이 자꾸 아리는 모양이었사와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읍죠. 원네는 차마 앓아 보채는 간난이를 제 방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사와요. 킁킁한 방에 혼자 갇혀 똥오줌 속을 헤매다 토방에 갇 더러운 기적가시에 찢린 애처로운 작은 손꾸락—머릿속이 타구 가슴이 끓구 있었읍죠.

「간난어멈, 애기 주무시면 나와 밥 먹우. 배추쌈이 맛있어.」 누군가가 장지 밖에서 소리를 쳤사와요. 「그래 내 뒷간에 갖다 갈게.」 원네는 잠깐 망설이다 애기 옷을 벗기구 빨려구 밀어 두었던 때문은 옷을 입혔읍죠. 바둑판으루 종종 땅아드린 머리를 풀구 마구 형클게 했사와요. 늦화루에 손을 넣어 재를 한호큼 덜어 내어 손을 부본읍죠. 그리구 애기 얼굴 머리 옷에 막 버무렸지오니까. 제 정신이 아닌 대루 애기를 안구 행랑방에 갖다 놓구 문고리를 걸었읍죠. 찢린 듯 애기가 우는 것을 귀를 막고 안채루 뛰어들어갔지오니까. 가슴이 두방맹이 치는 것을 간신히 진정허구 부엌에 나갔읍죠. 넓은 부엌바닥에 명석 깔구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짓거리해 가며 시시덕거리구 상전 안 계실 때 포식해보자구 베르는 사람들처럼 푸짐하게 밥을 먹고 있었사와요.

입 속이 까실거리구 목이 타서 먹는 것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간신히 넘기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오니까. 「어멈 어서 가 보우. 애기 깨셨나 봐.」 애기방에서는 간난이가 생인손이 아려 울 구 있었던 것입지요. 천장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구 벽이 바짝 다가왔다 물러갔다 했사와요. 어찌지 어찌지 어찌지——외마디밖에 모르는 등신처럼 속으로 골백번 뇌이구 뇌이구 했읍죠. 행랑방의 애기 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사와요. 울다 울다 기진해 잠드신 모양이셨사와요. 작은아씨 애기 용서합시오. 용서합시오. 간난이 생인손 날 때꺼지만 용서합시오. 원네는 소리를 죽이며 울었읍죠.

간난이는 그날 밤새 보켰읍죠. 어른두 참지 못하는 생인손입지요.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겠지오니까. 원네두 뜬 눈으루 췌읍지요. 그러면서두 행랑채의 애기가 걱정이 되어 죽구 싶은 심정이 지오니까. 지옥불에 던져져 지글지글 기름과 살이 타는 괴로움이 었읍죠. 입에서 단내가 확확 나는데 장지 밖에서 북들어머이 「간난어멈 오늘 같은 날은 행랑채 간난이 밥 좀 먹여주. 이젠 암죽 아니라두 잘 먹는다우. 그리구 마님두 안 기시니깐 젓두 모처럼 물려 보구려.」 하는 것이었사와요. 원네는 밖으루 나가 「마님 안 기신다구 어찌 젓을——」 했지오닛까. 벼락이 안 친 것이 이상합지요. 북들어머이 「고지식허긴 사람두. 제 새끼 젓 좀 물리는 게 쥔가.」 허구 핀잔을 주었사와요. 못 이기는 체 행랑채에 나가 천번만번 마음으로 빌며 씻겨 드리구 젓두 물려드렸읍죠.

그러기를 며칠을 했읍죠. 마님두 안 기시구 오목이년이 없으니깐 초록은 동색이라구 모두 원네를 불쌍해 했사와요. 김장독 문구 그릇 씻구 창기구 대엿새 걸리는 동안 원네는 마음이 부웅 뜬 채 집안 쓸구 닦구 애기방 간난이, 행랑채 애기 뒤걸고 꿈같이 지냈읍지요. 이젠 부영어멈두 북들어머두 행랑채 아이를 돌보려하지 않았사와요. 「호랑마님 오실 때꺼지 두 아이 보면 되잖아.」 원네가 할 일은 애기 저고리 두령이 풍채바지 짓구 마님이 내놓으신 타래머션 만드는 것이읍지요. 어멈들은 호랑마님 돌아오실 때까지 오이불잇 빨아치시구 다림이질 끝마치려 눈이 뱅뱅이 돌았읍죠.



대감마님과 마님은 열흘이 지나두 오시지 않으셨사와요. 대감마님은 낙향합실 만한 고장을 바로 찾으시어 며칠 더 묵으시겠다는 말씀이셔서 서방님까지 불러 내립시구 마님은 어머님이 그 날 그 날 허시면서 회춘하시지두 운명하시지두 안 허셔서 영겨주춤 걸려 기셨지오니까. 청풍댁 아씨는 아예 죽어 지내시는 분이어서 아랫 사람들 세상이었었읍지요.

열흘이 지나자 모두들 간이 커져서 「간난어멈 간난이두 안아와. 우리 함께 밥 먹자.」 하지오니까. 원네는 가슴이 떨렸었읍지요만 애기두 간난이두 뼈젓이 안구 나가군 했사와요. 어머들이 「아니 애 좀 봐. 에미는 밤에 세 번 이슬루 내린다더니 어머이 거두구버털 아주 짠 사람이 됐네. 한 열흘 동안에 몰라보게 됐단 말이야.」 허구 죄지은 년 가슴에 뜨끔한 소리를 하는굽쇼. 실상 어머들은 모지랑비 같은 머리를 헝클린, 때오줌 똥투성이의 간난이밖에 보지 못했지오니까. 반듯반듯 바둑판으로 노와 따은 양징스러운 종종머리, 흰웃이나마 깨끗하게 뺨 입성, 멀끔하게 씻은 얼굴, 댜 아이루 보일 수밖에 없었읍지요. 그것두 어두컴컴한 방에서 암죽 몇 술 떠넣어 즐 때 슬쩍 흘끔 봤던 게 아니오니까.

열흘이 지나자 간난이 생인손두 품아 터져 아물었사와요. 손톱이 빠져 나갔지만 어린 살이라 다시 난다구 어머들이 말했읍지요. 이젠 아이들을 다치 바꿔 봐야 됩지요. 그런데 도무지 그럴 틈새가 없사와요. 호랑마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 집안 안팎 기름 바른 듯 치위 놓구 어머들은 모두 구멍 같은 제 방구석에서 일을 했지오니까. 간난이——애집지요. 간난이두 안채 애기방에 데리구 가서 놀릴 수는 없사와요. 마님 눈에 띄셨다간 또 불호령이 내리 십지요.

그렇저렇 또 열흘이 지냈사와요. 그러는 동안 이년이 무엇엔가에 썩워지기 시작했지오니까. 하루 하루 때를 벗어 가서 이제는 귀하게조차 보이는 간난이가 정말 상전댁 애기같이 보이기 시작했사와요. 원네 나이 열 아홉, 어린 년이 간두 크게 아주 유들유들 영큼해졌읍지요. 착하신 우리 작은아씨, 죄없이 본댁에서 눈물루 지내시는 우리 작은아씨, 우리 작은아씨 가슴에 한스러운

못을 박은 박씨댁, 피도 눈물도 모르는 마님, 그래 애긴 작은아씨 배만 잠깐 빌린 박씨댁 핏줄, 죄송할 것두 미안할 것두 없어. 아냐 아냐 큰일날 생각이야. 그건 천륜을 어기는 일이야. 벼락맞아. 벼락 맞구말구. 천갈래 만갈래 생각으로 몇 밤 몇 날을 지낸 후 알아 낸 것은 간난이 손톱 밑에 박혔던 가시는 빠졌어두 천네들 종년 가슴에 박힌 왕가시는 빠지지 않았다는 한이었사와요.

마님은 기어이 상을 당합시구 달 가신 후 돌아오셨사와요. 간난이는——애기는 벌써 따로 따로를 허구 붙들구는 걸음마두 하게끔 자랐었읍지요. 어처구니없게두 마님은 좋아허셨지오니까. 「그새 몰라보게 자랐구나. 그래 그래 할미 왔다. 할미 보구 싶었지?」 전에 없이 애기 뺨을 뺨으로 부비시다가 「엇, 손톱이 왜 이래.」 하셨사와요. 뜨끔허면서 「죄송합니다 생인손을 앓으셨사와요.」 하구 여쭙었더니 「온 어린 것을 생인손 앓게 하다니 뺨들을 헨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시다가 「손톱은 또 나겠지만 얼마나 아팠을고——」 애처로우신 듯 다시 뺨을 부비셨사와요.

그러나 애기 손톱은 영영 다사 나지 않았사와요. 손톱만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손꾸락만 잘 자라지도 않아, 가운데 손꾸락이니 만큼 마치 손꾸락 마디가 잘린 것처럼 보였읍지요. 천륜을 어긴 끔찍한 죄에 대한 무서운 벌처럼, 근본을 벗겨 보이려는 하늘의 뜻처럼 흉한 모양으로 남게 되었지오니까. 애기 첫똥이 지난 지 서너 달 후에 감삿댁에는 큰 변이 일어나셨사와요. 충청도 술재라던가 참나뭇골이라던가 하는 고장은 정감록에 써어 있는 피접터랍시구요.

대감마님은 세상꼴 보기 싫다시며 그리 낙향하시려 하셨다지오니까. 대감댁은 반남 박씨댁이라 부마댁과는 당내가 되셨읍지요. 감신 역모에 부마께서 참섭합시어 한때 박씨 문중이 참변을 당허셨읍죠. 감삿댁은 다행히 큰 화는 입지 않으셨읍죠만 서방님 향렬자인 영(泳)자를 승(勝)자로 바꾸시어 영자 호(浩)자를 승자 호자로 고치셨으니 함자를 바꾸시는 변이 그리 혼한 일이시오닛까. 그래 저래 대감마님은 세상사가 구찮아지신 것이읍지요. 그런데 그 술재가 참나뭇골이라는 데가 바루 호랑이 굴이었읍죠. 갑오년의 일

입지요. 전라도에서 일어났다는 동학들이 나라를 수륙(살육)질허구 돌아다닐 때였읍지요. 그 동학들이 정감록의 피접지란 그 고을에 밀구 들어갔던 것이지오닛까. 양반이라면 이를 갈구 시신까지 찢는 판인데 삼한 갑죽 반란 박씨댁 감사대감을 그대루 두어 드릴리 만무합쇼.

대감마님은 수륙이 됩시구 염(殮)두 잠술 수 없으셨다 하와요. 다행히 그곳에 내려가셨던 서방님은 얼마 전에 한양으로 돌아옵시어 화를 면하셨읍쇼만 그런 난리가 또 어디 있겠지오니까. 3년 동안은 온통 사는 것 같지 않았사와요. 승중손(承重孫)으로 조부님 여막(盧幕)을 지키서 마땅합시었읍쇼만 세상이 달라져 케연(几筵)만 되시구 서방님은 3년을 지나셨읍쇼. 다시 출타하셨을 때는 육조나 종로 거리를 내왕하는 사람 중에 머리 깎은 사람이 많아 놀라셨다 허셨사와요.

그 동안 애기 어머니이신 작은아씨는 본택에서 돌아가셨읍지요. 죽대 없으신 서방님은 마님이 무서우셔서 꼭두 못 하셨사와요. 인자합시던 참판댁 마님두 세상을 떠나신 후 참판 어른두 그 뒤를 따르시구 사직동댁은 아주 달라지셨사와요. 교군간의 교군을 치우시구 빙글빙글 도는 바퀴가 달린, 사람이 끄는 인력거라는 수레가 들어있었지오니까.

장끼와 북돌이는 동학이 된 것이라구 어멈들이 숙덕거리구 있더이다만 보이지 않구 귀뚜라미만한 장끼아범이 그 인력거를 끈다구 했사와요. 머리를 깎으시구 제비댕기를 목에 매신 서방님이 탐신다는데 관운장만큼이나 건장허신 서방님과 커다란 수레를 조막만한 장끼아범이 어떻게 함께 끄는지 걱정이 났사와요. 서방님이 글씨를 쓰실 땐 붓두 쓰시지만 철필이란 뽕족한 연장두 쓸신다구 상노로 있는 막쇠가 알려주었사와요. 「우리댁 서방님 개화허신 거야.」 막쇠는 빠졌지만 교동 감삿댁에서는 개화란 말만 들으셔두 질겁을 허시구 숨으셨지오니까. 부마댁에서 개화허셨기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셨읍지요. 옛 규모와 티끌만큼 두 달라지신 게 없으셨사와요. 그래서 아랫것들이 나들이 갔다가 상투가 잘렸을 때는 울음바다가 됐읍쇼.

을미년 겨울이었사와요. 길모퉁이마다 왜놈과 관원이 가위를 들고 서 있다가 불문곡절허구 상투를 잘랐다 합지요. 영이무두인(영위무두인·寧爲無頭人) 무이단발인(무위단발인·無爲斷髮人)라 굽시지요. 상투를 잘리느니 차라리 머리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겁지요. 그런 소동이 없었지오니까.

서방님은 3년 지나서서 남양 흥씨댁 규수와 사모관대(사모관대·紗帽冠帶)합시구 채취 장가 들시구 조금씩 살림이 줄어가는지는 하시나 그런대루 지나셨음고 새애기씨가 득남하시어 마님 소원두 푸시게 되셨음지요. 그러나 거리에 나가면 옛날이 아니었음쥬. 그렇게 신기하던 가지등두 역부러 구경하는 사람 따위는 없었사와요. 진고개나 야주개에는 일인 청인이 늘었다구들 했음쥬.

일너는 속곳두 입지 앓구 두렁이 걸은 걸 두르구 서서 소피를 본다구들 하구, 양인들은 사람들을 붙들어다 어름 위에서 땡땡이를 돌리구 어지러뜨리면 간을 빼어 환을 만드는데 양인 의원의 약은 그래서 잘 듣는다구들 했사와요. 더구나 규중 처자들을 붙들어다 핵교(학교·學校)라는 데 끌어가는데 핵교에 가는 날이면 야금야금 진이 빠져 살아서 손각씨귀신이 된다구들두 했음쥬.

그래서 건학대(권학대·勸學隊)라는 사람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처녀들 공부시키자고 아무리 애를 써두 뼈대 있는 데에서는 막무가내루 따님들을 내놓지 않았음쥬. 공책두 거져 준다. 연필두 거져 준다. 신발두 거져 준다. 가르치는 것은 물론 거져다 해두 막무가내입쥬. 야중에는 집집마다 뒤지다시피 했사와요. 그 건학대가 교동에두 나타났었지오니까. 병오년이니깐 작은아씨두, 이제 원네는 제 딸년을 작은아씨라구 부르구 있었음쥬. 간난이두 열 세 살이 되어 있었사와요. 과년한 처녀 있는 집에선 그네들 낀새만 봐도 딸들을 머리카락두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겁지요. 길모퉁이의 시커먼 홀태바지가 보이면 질겁을 허구 뛰어들어갔쥬. 「작은아씨 작은아씨 빨리 어서 숨으세요. 건학대놈들이 오구 있사와요. 빨리 얼른——」 작은아씨는 허겁지겁 다락으로 올라가구, 사군자 그림 붙은 다락문 앞에 마님이 장죽 무시구 점잖게 앉으십시오. 우리댁 차례가 되어 건학대가 들어옵지요. 마님은 스프르 눈

을 감으시구 「게 누구 없느냐. 누가 오신 모양이다.」 하십죠.

건학대 같은 건 보이지두 앓으신 것처럼 말입지요. 건학대는 애걸복걸협지요. 세상이 개화됐으니 여자두 배워야 되구 여자가 괴육(교육·敎育)을 받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느니 세상이 밝아진다느니 수작을 늘어놓지요. 마님은 꿈쩍도 안 하시지오니까. 「게 부엌아범 없느냐. 듣지 못하던 소리가 들린다. 줌 와 봐야겠다.」 부엌아범은 진작부터 와 있음죠. 건학대들은 한숨을 쉬었사와요. 그런 부인과 맞서는 건 벽에 주먹질하는 격입죠. 헛수고뿐이지오니까. 그네들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저으며 나갑지요. 그제서야 다락에서 숨을 죽이구 오들오들 떨던 작은아씨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리딛는 것입죠.

이런 일이 몇 번 있는 뒤 마님은 서둘러서 작은아씨 혼처를 구하시구 이듬해 정미년 초여름에 적성 십저리 신씨덕으루 출가시키셨읍지요. 열 네 살 어린 신부는 동갑 도령과 짝지어지구 시댁인 신씨덕두 불천지위(不遷之位)까지 되신 대갓댁이시라 어느 쪽두 기울지 않는 걸맞는 동색(同色) 혼사랍시구 기뻐들 허셨읍지요.

어쨌든 정미년이 저물기 전에 교동 박대감댁에는 나이 찬 새 악시가 없게 됐사와요. 간난이가 제 말으루 건학대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지요. 그 후 간난이는 핵교라는 데를 가구 양인따라 서양엘 갔다납지요. 영영 돌아오지 않았구, 원네는 몇 번 팔자 고쳐 봤읍죠만 낡은 족죽 죽어 의지없이 되었사와요. 그때 박씨덕에서 장끼만 받아들여 주셨더라면 허구 한숨만 쉬었읍죠. 신씨덕에서는 집안에 수발 들 사람이 넉넉하니 하님두 조전비두 데리고 올 것 없다 합시어 원네는 작은아씨 조석 문안드리시는 것 사흘 동안 시증들어드리구 교동덕으루 돌아갔읍죠.

시절이 달라지기두 했읍죠만 지난날의 참판댁 작은아씨 되셨을 때완 모든 게 달랐사와요. 우선 새색시 모습부터가 판이합죠. 모녀분 인격이웁지만 성격하신 모습이 같으실 리 없지오니까. 옛날에는 미명실로 살짝 솜털을 곱게 밀구 버들잎 모양으루 눈썹다듬구 분 입히구 연지 끈지 적으면 꿀루 내려간 아랫위 눈시울을 볼

였읍죠. 따님 때만 해두 눈을 꿀루 붙이지는 안했사와요. 큰머리 두 초례(醮禮) 때만 허구 조석 문안은 민머리였읍죠. 천륜을 어긴 무거운 죄인이 제 딸년을 상전으루 섬기며 그제 별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어 하며 늘상 오매속 사람마냥 지냈던 세월이 한스러웠사와요. 다만 박씨댁과는 달리 인자하고 후하신 가풍이 짐작되와 열만큼 마음을 놓은 것은 진정 에미루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겠읍지요. 새삼 박씨댁 마님 며느님 북으시던 일이 되살아나 박복하신 작은아씨 생각에 시율이 뜨거워졌지오니까. 정말 꾸지람두 매질두 가지가지읍지요.

언젠가 마님은 작은아씨 방에 들셨다가 명주수건을 떨어뜨리구 나가신 일이 있었사와요. 그제 작은아씨 빨랫거리에 휩쓸려 사직 골덥으로 간 것입죠. 마님은 노발대발하셨사와요. 며느님은 말할 것두 없구 식구들을 모두 모아 놓으시구 그 앞뜰 아래에서 쉼대를 치게 하셨읍지요. 「이년 버릇 없이 어른의 것을 함부로 다뤄. 그년 되우 쳐라.」 종아리에서 피가 마구 흘러두 매질은 몇지 않았읍죠. 작은아씨는 그만 기함을 하셨지오니까. 마님은 며느님을 치셨던 것입지요.

종년 종아리는 잠깐 빌리신 것에 불과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었읍죠. 시집살이 서럽구, 남의 몫의 매까지 맞아야 하는 종년살이 서럽구, 서러운 목숨이었지오니까. 그런저런 생각으루 사흘 밤을 지새웠읍지요. 이해에는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장하게 싸웠는데 섭저리댁은 의병과 일병이 번갈아 들어 그해 농사는 씨꼭두 남지 않고 아낙들은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점잖은 분들두 주제들이 말쑥이 아니었다 하셨사와요. 새 사람 들어가자 뜻밖의 일을 당하시니 아무리 인품 좋으신 댁에서도 점점 하셨으리라 민망했었읍지요.

대갓댁도 망하러 들면 허망하옵지오니까. 교동댁에 불이 난 것은 무오년 시월이었사와요. 상달에 드리는 고사떡 찌다 방이 달아 아랫목(아랫목)에 깔아 놓으셨던 처네가 타들어가 번진 불입지요. 지신 축간신 부뚜막신 굴뚝신 곡간신——신두 많았읍죠. 그 많은 신들에게 뭇뭇이 바치는 떡이 어마어마합죠. 그땐 벌써 아

랫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손두 모자라니 그만그만해 들셔두 좋으시련만 마님 극성은 여전하시어 변을 당하신 것이지오니까. 문셔두 다 타 버려 그 많은 땅이 어디에 어떤 형용으로 있는지도 모름시어 마름이 오르내리구 법석이셨는데 그 마름에게 당하셨다구 들 혀셨사와요.

화재당한 사람은 재앙을 몰구 온다는 사위가 있다지오니까. 집안에서두 받아주는 덕이 없어 선영 묘하인 광주로 내려가셔서 부랴부랴 거처를 정하셨읍죠. 원네두 어른들 피시구 광주까지 갔었읍죠만 입 하나라두 덜어 드려야 할 형편이신 것을 알구 을면서 서울로 돌아왔읍죠. 그 덕과는 달리 그 고장에서 으뜸으로 사시던 십저리 신씨덕은 이번저변으로 철량을 잃으시구 구차해지시자 슬가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여염에 묻혀 버리셨다 하시니 딸 하나 행처두 모르게 됐지오니까.

헐헐(헐헐)단신 의탁할 곳 없는 몸이 되고 보니 첫서방이라구 장끼 생각이 났었읍죠만 동학이 되어 죽었다기두 허구 의병에 나갔다가기두 허구 포천장에서 포목 장사 하는 것 봤다가기두 하는 따위 소문만 듣구 사람은 보지 못했사와요. 팔자두 기박한 놈입죠. 하오나 옛날 종살이하던 사람 중에는 자리잡아 잘된 사람도 많읍죠. 고약(고학)해 가지구 대학교 선상님까지 된 사람두 있다 합지요. 사람은 시기를 잘 잡아야 하오니다. 아차 잘 생각 못하면 그만입지요.

감삿덕 서방님은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시구 상투만 고집하시다 새 세상에선 그만 무식쟁이가 되셨읍지요. 일찌감치 개화하신 사직골덕 서방님은 외국까지 가서서 공부 많이 험시구 사업두 크게 혀셨지오닛까. 십덕두 착하셔서 지지리 고생하는 원네를 늘 도와 주셨는데 떠돌아다니는 중 그 덕이 반이(搬移)합시어 그만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읍죠.

6.25 난리가 끝난 후 몇 해가 지났을 때 원네는 거지할멈이 되어 있었읍죠. 나이 일흔이였섯사와요. 배고파 허기져 헤매다 어느 덕 대문 앞에 앉아 있었읍죠. 그 덕 앞에는 으리으리한 자동차가 서 있었사와요. 젊잖은 어른이 나오셔서 차를 타시려 합셔

요. 원네는 손을 내밀다 그만 기절초풍을 했읍죠. 바루 사직골택 서방님 아니시오니까. 많이 많이 늙으셨지만 담박에 알아뵐 수 있었사와요. 해방 후에는 한 번두 뵈지 못했읍죠만. 그 뒤부터 원네는 쭉욱, 그리고 지금두 꿈 속에서 살구 있지오니까. 모든 게 꿈만 같던 그때 있었던 일을 어찌 몇 마디로 말씀할 수 있사 오리카.

서방님은 아니 회장님은 원네 딸 간난이, 지금은 간난 대학교 학장 정간난 박사와 함께 정참판택에 있던 언넌이를 찾고 기셨다고 하셨사와요. 서방님과 간난이는 양국에서 자주 만나셨구 환국 후에두 늘 왕래가 계셨답시오. 어쨌건 천벌을 받을 년이 그로 부터 이 호강을 하고 있읍지요. 허나 그렇다고 원네 업보가 끝난 것은 아니었었사와요.

이 택에 들어온 다음 날 저녁이었읍죠. 나이 원 안팎의 아낙이 얇전히 채린 저녁상을 들여왔사와요. 상배를 보구 안목 있구 범절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읍죠. 비록 거지로까지 내리떨어진 일이 있사와도 대갓택에서 잔뼈가 굵어진 몸이와요. 한눈에 그런 건 압지요. 음식두 아주 깨끗허구 간이 맞습시구요.

「숨씨가 아주 좋우. 정말 맛있게 먹었어.」하구 치하를 했읍죠. 조용한 사람인 모양으로 대꾸없이 고개만 숙였사와요. 가만히 상을 드는데 상판에 걸쳐진 손이 눈이 들었사와요. 그 손——마디 하나가 잘라진 것 같은 손톱 없는 왼손 가운데 손꾸락——원네는 그만 등푼이 오싹해지며 관자노리를 갑자기 호되게 맞은 것처럼 심한 현기를 느꼈읍죠. 그때 간난 박사가 들어왔사와요. 「진지 잘 잡수셨어요. 마침 오늘은 밖에서 회식이 있어 되시구 들지 못해 죄송해요. 허지만 찬은 그대로 맛이 괜찮죠. 이번 아줌마는 드물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얇전하구 숨씨 좋구 말수 적구. 배운 건 없지만 그래두 괜찮은 집안의 사람인가 봐요. 섭저리서 왔는데 섭저리가 어딘가 몰라——」

섭저리——그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돌덩어리가 되어 원네 머리 위에 떨어졌사와요. 원네는 기합허구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사와요. 너무 고생하던 끝이라 기진했던 것이라구



들 말했었지요니까. 섭저리택은 그로부터 10여 년 육십이 넘어서 까지 이 택에서 에민 줄 모르며 이 죄많은 천한 늙은이를 고여 주 다 너무 늙자, 가르치지 못해 미쟁이 일을 한다는 아들한테루 가서 소식이 끊어졌사와요. 천네 가슴에는 또하나의 못이 깊숙이 아프게 박히게 된 것이옵지요.

아, 이렇게 죄많은 늙은이는 어떻게 죄값을 해야 하오니까. 서러운 에미 신세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 주는 것이 한이 되어 저지 른 죄옵지요. 하오나 그것은 기실 가슴에 박힌 한뫟한 못을 빼기 는커녕 제 손모가지루 더 깊게 더 아프게 박고 있던 인생이었사와요. 지금 뜻하지 않게 귀한 이 택에서 상어른 대접받고 당치 않는 극진한 효도받고 꿈 같은 호강 속에 살구 있음조만 당치않은 호강은 그대루 깔고 앉은 바늘방석의 바늘 수만 늘려 가게 하와요. 천주님, 신부님, 천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시오.

할머니의 긴 이야기는 끝났다. 신부는 보속을 줄 힘이 없었다. 오래 전에 죽어 버린 말씨로 오래 전에 잊혀졌을 사연을 엮어 간 그 긴 이야기는 분명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으나 죄의 고백이라기 보다 한이 토해 내는 지극히 토속적인 한숨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가슴에 박힌 한이 뭉쳐 딱딱한 실패가 되고 새롭게 쌓여 가는 한은 피명으로 얼룩진 실줄이 되어 감겨 가고—그리고 오늘 이 노파는 놀라운 기억력과 기력으로 그 실 꼬트머리를 찾아 내어 구비구비 풀어 나갔던 것을 그는 들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풀어 내고 풀어 내고 풀어 내면 실패처럼 딱딱하게 영겨굳은 한도 실이 되어 응어리 없이 풀려 버릴 것도 같았다.

신부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마리아 할머니는 앉은 채 즐고 있었다. 눈감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였으나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무표정하고 평화로웠다. 한에서도 풀려나고 죄에서도 벗어난 얼굴이었다. 신부는 노파의 머리 위에 성호를 그었다.

「주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1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의 그 귀절던 죽은 말이 되살아나고  
앉은 채 졸고 있던 평화스러운 모습이 눈에 서연하게 어렸다. 신  
부는 눈을 들고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가만히 성호를 그었다.

「주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